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 Torrance /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주일
제31권 9호(가해) 2011.1.23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길을 준비했던 예수님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빛으로 떠오르리라 던 그 분,
즐거움을 많이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시니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던 그 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암흑의 땅,
이민족들의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니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시고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생명의 빛이 되시네.

괴로움과 슬픔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절망과 어둠은 희망과 빛으로
하늘 나라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절망을 걷어내고 주어지는 기쁨이네. - 框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제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전신자 성경통독	오전 10:00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제주) 울트레아 (4제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제토요일) 성령기도회 베른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인영 베드로 (생)김병도 프란치스코 몬시뇰, 이호순 프란체스카, 김낙기 바오로, 최은경 카나리나, 이원영 로즈마리 & 이원재
주 일 낮 미사	(연)윤재림 마리아, 김순선 아네스, 김기숙 켈마, 이만춘 마리노,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정형두 바오로, 박송희, 오명순, 윤희중, 이차영 (생)김택수 프란치스코 & 김명숙 루실라 가정 김피터 & 김바비,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이윤조 글라라, 이진향 아네스, 박선희 소피아, 박음전 아네스, PV 4반 가정, 하버카슨 구역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8,23-9,3

화답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네.



주 님 은 나 의 빛, 나 의 구 원 이 시 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주님께 칭하는 오직 한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리보는 것이라네.○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10-13,1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예수님은 하늘 날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복 음 마태오(Matthew) 4,12-23<또는 4,12-17>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4	211	214
봉헌	217	270	217
성체	284	282	284
과전	238	234	238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국법과 도덕률

국법의 참된 목적은 참된 정의 안에서 질서 있는 사회 공존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1 디모 2,2)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속한 어떤 기본권들, 즉 모든 긍정적인 법이 반드시 인정하고 보장해야 할 권리들에 대한 존중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들 중에서 첫 번째이면서 기본적인 권리는 모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지닌 불가침권이다.

때로 공권력이 어떤 것을 금지했을 때 더욱 심각한 해악을 일으키게 될 것 같은 경우에,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생명에 대한 권리처럼 아주 근본적인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일어나는 타인에 대한 공격을 개인의-비록 그들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라고 할지라도-권리로 정당화해 주는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결코 안된다. 낙태나 안락사에 대한 법적인 관용이 타인의 양심에 대한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 서있는 것이라고 결코 주장할 수 없다. 양심이라는 이유로, 자유라는 구실 하에 일어날 수 있는 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바로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 23세께서는 회칙「지상의 평화」에서 이렇게 지적하셨다. "현대에서 공동선의 실현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으로써 드러난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주요한 책무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권리들을 인식하고 존중하여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각 개인의 의무들을 더욱 쉽게 이행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 권리의 침범할 수 없는 국면을 보호하고, 그 의무들을 완수하는 것은 모든 공권력의 본질적인 의무이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행위가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범하게 되면, 그 직무 수행에 실패하는 것이며, 그런 잘못된 법령은 구속력을 상실하게 된다."

72). 국법이 도덕률에 일치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교리는 교회 전통 전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요한 23세의 회칙은 이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 있다. "권력은 윤리적 질서에서 요청되는 것이며,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법과 명령들이 윤리적 질서나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입법된다면, 그런 권한은 양심을 구속할 힘을 갖지 못한다.……그런 경우에는 권력의 본질이 훼손될 뿐 아니라 불의한 남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성 토마스 데 아퀴노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법은 올바른 이성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따라서 영원한 법에 기원을 두는 한도 내에서 법이다. 그러나 법이 이성과 모순될 때 그것은 악법이 되며, 이런 경우에 그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폭력행위가 된다."고 말한다.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안된다!” 아버지는 한마디로 제 말을 자르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는 자상하셨지만 한번 결정을 하시면 절대 바꾸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한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저에게 속삭이듯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티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너의 인생은 네가 선택하렴.” 그날 밤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저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 몰래 신학교에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아버지와 저는 서먹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 아버지는 저에게 반대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제는 너무 힘든 길이라 생각해서 너를 말리고 싶었다. 그러나 네가 선택했으니 좋은 신부님이 되어주렴.” 저는 그날 밤 주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권력층이나 지식층의 인사도 아니니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저 평범하고 가진 것 없는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

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부르시는 분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내가 지닌 것을 버리고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업인 고기잡이 도구와 배와 그물을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명을 늘어놓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안됩니다. 저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요.”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불만을 터뜨린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필 왜 저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저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욕심과 사심의 그물을 버리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귀를 막고 저 멀리 도망쳐 버렸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부디 불러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쓰시든 그저 눈물 나게 고마울 뿐입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박희자 마리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민상 사도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만

다음 주 전례 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주님 봉헌 축일 ... 초 봉헌 및 축성

오는 2월2일(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쓰실 초를 봉헌 받습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26일(수)까지(사무실, 성물부 김막달레나)
- 봉헌미사 : 2월2일(수) 오후 7시30분

◆ 전례분과 평가회

- 일시 : 오늘 주일(23일) 오후 4시, 강당(디너 제공)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전례분과장 ☎(310)365-7871

◆ 구역장 / 반장 회의

- 일시 : 25일(화) 오후 8시
- 장소 : 강당
- 문의 : 소공동체부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 신영세자 첫 모임

- 일시 : 26일(수) 저녁미사 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대상 : 2010년 성탄 영세자 12명
- 내용 : 교해성사에 대한 해설 및 첫 고해

◆ 본당 30주년 기념 묵주기도 30만단 바치기

- 묵주기도 봉헌표 : 사무실
- 묵주기도 봉헌함 : 일주일에 한번씩 묵주기도 봉헌표를 제대앞에 마련된 묵주기도 봉헌함에 넣어 주십시오.

◆ 본당 설립 30주년 맞이 전 신자 친구약 통독

본당 설립 30주년 맞이 전 신자 친구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성서읽기에 맞춰 알기쉬운 해설을 주간별로 강의합니다. 나눠 드린 매일성경읽기표에 따라 꾸준히 성경을 읽어나갑시다.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성전
- 지도 : 이장환 신부님(이주간의 암송성구 주보 5면 참조)

◆ 신묘년 설 합동위령미사

- 일시 : 2월3일(목)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미사지향 : 1월30일(주일)까지 마감(사무실)
- 이날(목) 스케줄되어있는 성경통독 공부반은 휴강합니다.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미사 및 견진성사 안내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미사가 2월6일(주일) 오전 11시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LA대교구 San Pedro Region 담당)을 모시고 거행됩니다. 특히 이 미사 중에 성인 교우들을 대상으로 견진성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견진받기를 원하는 세례신자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일시 : 2011년 2월6일(주일) 오전 11시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견진교육 일정 : 1월28일(금) 오후 8시, 29일(토) 오후 8시, 2월5일(토) 오후 8시 리허설
- 견진신청 마감 : 오늘 주일(23일)까지
- 문의 : 종교교육분과장 최재은 베드로 ☎(310)694-4585

◆ 전신자 모두 예비자를 봉헌합시다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전신자 봉헌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알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여,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우리 백삼위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세례식 일정은 추후 알립니다.

- 환영식 : 2011년 2월27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시간 : 3월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문의 : 복음화분과장 김충섭 마틴 ☎(213)820-7636

◆ CLN 백삼위 본당 대표 3명 선정

미가톨릭 주교회의 산하 캘리포니아 가톨릭 컨퍼런스의 실행기구인 CLN(Catholic Legislative Network) 백삼위 한인 공동체 대표로 3명의 교우가 선정됐습니다.

- 강인모 테오도시오 ● 이남현 막시모 ● 박봉성 안드레아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월23일(주일) : P.V. 2반(육개장 \$3)
- 1월30일(주일) : 토렌스 서 3반(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권오상	금영도	김광자	김양금	김유숙
	김윤진	김 은	김재영	김정엽	김종문	김준호
	문향업	박영룡	박종민	안연숙	안재만	안태갑
	우영희	윤희동	이영석	이일길	이태옥	이호미
	익 명	전동훈	조준제	주영석	채양석	최진수
최현찬						
합계 : \$3,071						
미사헌금 : \$3,430						

성전헌금	고천용	권오상	금영도	김광자	김양금	김유숙
	김윤진	김정엽	김종문	김준호	문향업	박영룡
	안연숙	안재만	안태갑	윤희동	이영석	이호미
	익명	전동훈	조준제	채양석	최진수	최현찬
합계 : \$2,410						
한남체인 도네이션 : \$460						

공지사항

◆ SAT II한국어 시험 준비반 모집

- 대상 : 2011년 11월 첫째주(토)에 예정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9학년 이상)
- 모집기간 : 1월30일까지(5명 이하인 경우 최소됩니다.)
- 신청 : 한국학교 교사실 .문의 : 이헬레나 교장 ☎422-0066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받습니다.

남가주 소식

◆ 영화와 함께 하는 피정(Retreat with Movie)

- 일시 : 2월12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 상영영화 : 'Click'(Adam Sandler 주연)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310.324.8159)
- 지도 : 황광우 요셉 신부 * 피정비 : \$20
- 올해일정 : 2,4,6,10,12월 두번째 토요일

◆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3월5일(토) 낮 12시
- Royal Vista 골프코스
- 참가비 : \$100(라운딩, 카트, 디너 포함)
- 문의 : (323)734-4946 *지도 : 최용훈 요셉 신부

◆ 전신자 친구약 통독 넷째주간 암송 성구 ◆

- 1월24일(월) 이사야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6,8)
- 1월25일(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7,14)
- 1월26일(수)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11,1)
- 1월27일(목)
내 땅에서는 영세민도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들도 마음놓고 쉬리라.(14,30)
- 1월28일(금)
햇볕 아래 따가운 더위처럼 수확 철 더위 때의 이슬 구름처럼 나는 내 처소에서 조용히 바라보리라.(18,4)
- 1월29일(토)
주님, 저는 온종일 쉴 새 없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밤마다 망대 위에 서 있습니다.(21,8)
- 1월30일(일)
동쪽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바닷가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리라.(24,15)

이번 주 단체 모임

2011년 1월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유현자 안나 1/7(금) 오후 7시 483-5476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1/8(토) 오후 7시 530-7702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1/14(금) 오후 8시 성당 854-9407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박동수 베드로 1/14(금) 오후 7시 218-7340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윤바오로 1/8(토) 오후 6시 316-7819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김미성 에스텔 1/10(월) 오전 10시30분 720-2876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이인석 비오 1/21(금) 오후 7시30분 433-9075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1/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972-9193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이재용 안드레아 1/8(토) 오후 6시 750-4051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병태 요셉 1/14(금) 오후 7시 327-1658
	3	대전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회 반도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김윤진 카타리나 1/14(금) 오후 7시30분 성당 997-554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이용무 스테파노 1/14(금) 오후 7시 377-9989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금영도 베드로 1/14(금) 오후 7시 541-4706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한애경 올리아나 1/14(금) 오후 7시 541-5370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영숙 수산나 1/11(화) 오전 10시30분 544-5078

주보로 배우는 교리

전교, 선교, 복음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전교, 선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복음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교(傳敎)와 선교(宣敎), 포교(布敎)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Missio(Mission)를 번역 한 것인데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에 대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라 하면 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선교라는 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거 선교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유럽인들이 선교하려는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입장에서 신앙만을 전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식민지주의의 폐해에 따른 결과로 선교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새로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이 복음화 라는 말이지요.

한편 복음화란 Evangelizatio(Evangelization)를 번역한 것으로 교회가 펼쳐야 하는 사명이라는 폭넓은 의미로 쓰이며 때로는 복음 선교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화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복음의 힘으로 모든 개인과 집단, 그들의 활동, 가치관, 생활양식, 구체적 생활환경, 문화 등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현대의 복음선교 18-19항 참조.)

이처럼 복음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이사회에서 펼쳐야 할 모든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화의 대상은 믿지 않는 이들, 믿는 이들, 신앙의 열성을 잃은 이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는 선교활동, 보다 넓은 의미로는 복음화 활동을 통해 인간들이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장차 초월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 신명기 14,3-8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짐승 중 돼지나 토끼는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되어 있더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14,21에서는 죽은 것은 먹지 못하는데 그런 것은 떠돌이에게 주든지 외국인에게 팔든지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만민의 하

느님이신데 그런 규정은 이스라엘에서만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에 전능하신 하느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어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는 당신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구원사업을 완성 하셨지요. 이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서입니다. 성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여러사람의 손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쓰여진 것이지요. 아울러 그 시대의 문화나 생활상, 가치관에 따라서 쓰여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쳤던 짐승 중에서 소나 양 등을 가장 깨끗하게 여겼답니다. 반면 돼지를 비롯한 일부 짐승들은 이교도들이 우상숭배시에 사용하였기에 이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지요. 그 외에도 어떤 동물들은 정하다고 여기고, 어떤 동물들은 부정을 탄다고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을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죽은 것은 먹지 말라는 것 역시 정,부정에 관한 율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나 주라는 것이지요. 네, 어찌보면 매우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느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따라서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누구나 회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하시며 율법을 완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참고로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부정하다 하여 네 발 가진 짐승과 다른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자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말라고 말씀하시지요.(사도행전 11,4-10 참조). 이처럼 하느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기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마음을 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데 더욱더 헌신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료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